



# 세계 시민교육 보고대회

## 모로코 세계의회(The World Congress on Civic Education)를 다녀와서

글 · 유혜선 sunny98@kdemo.or.kr

## 모로코의 시민교육

모로코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오래된 영화 <카사블랑카>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세계적 흥행에 성공했던 <카사블랑카>는 잉그리드 버그만과 험프리 보가트가 주인공으로 나와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회환과 카사블랑카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불러일으켰지만, 실제로 영화가 제작된 곳은 모로코가 아니라 할리우드의 한 세트장에서였다. 훗날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운영하던 술집, 리크의 카페(Rick's Cafe)는 시설 전체가 카사블랑카로 옮겨와 레스토랑으로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모로코는 영화 속의 모습처럼 로맨틱한 곳은 아니었다. 외국인만 보면 돈을 요구하는 아이들과 아무테나 흘려놓은 배설물, 흥정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인 가격, 꼬맹이들까지 치마 입은 여자에게 들러붙고(모로코의 거리엔 다리를 드러낸 여성이 없다), 시민교육을 한다는 사람들조차 '전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는,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이는 나라였다. 그럼에도 변화와 발전에 대한 모로코인들의 열망과 외국인에게 최고의 환대를 하려는 따뜻한 마음만큼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가슴으로 전달되기에 충분했다.



소그룹 발표

모로코는 1956년 프랑스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했고, 1962년부터 입헌군주제를 실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내각과 군부는 왕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 1999년, 전 국왕의 서거로 통치권을 이어 받은 젊은 군주 모하메드 6세는 2002년 '국민헌장(The National Charter)'을 발표하고 전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모로코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민교육 역시 국민헌장에 기초한 교육 개혁의 일환이라고 한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모로코의 시민교육은 새 국왕의 등극 이후 빠르게 성장했고, 모로코보다 시민교육을 먼저 받아들인 요르단과 레바논을 제치고 '시민교육 세계의회(The World Congress on Civic Education)'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모로코의 시민교육 관계자들은 세계의회 개최를 계기로 정치권과 교육계의 높아진 관심에 힘입어 민주주의 교육을 뿌리내릴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모로코 시민교육의 중심에는 모로코 시민교육센터(Morocco Center for Civic Education, MCCE)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04년 9월에 공식 출범한 MCCE는 비정부기구(NGO)로 구성원 전체가 현직 교사이면서 자원 봉사자이다. 이들은 낮에는 교사로 일하고 밤과 주말에는 다른 교사들을 가르치고 학생들과 시민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대표 혼자 깃발을 흔들고 있던 초라한 단체였지만 2006년에 잘 길러낸 1명의 교사가 같은 해에 18명의 교사를 배출해냈고, 18명이 양성한 수십 명의 교사가 현재 4개 도시에서 34개의 학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에는 대학에서 1년 과정 수료증을 줄 것이라고 하니 MCCE 관계자들의 열정과 헌신이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 미국 시민교육센터와 세계의회

MCCE의 눈부신 성장 뒤에는 미국 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 CCE)의 노련한 경험과 재정적 후



플로리다 사례 발표 장면

원이 버티고 있다. CCE는 1964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LA)에서 결성된 초중고생을 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소위원회에서 출발하여, 1969년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산하에 있다가 1981년 독립하였다.

CCE는 미의회에서 통과된 ‘민주주의 교육법’에 준하여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비영리 단체로써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독립되어 있는 초당파적 조직을 표방하고 있다. CCE는 미국 내 30개 주에서 실행하고 있는 ‘시민(Civics)’ 과목의 교재와 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하고 있고, 세계 70여 개 나라와 손잡고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미국 시민교육의 대표 주자이다.

미국에는 여러 시민교육 단체들이 있다. 그럼에도 CCE가 국내 정치의 변동과 세계 각국 정치 변수에 흔들림 없이 미국의 대표 단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CCE와 그를 둘러싼 국내외의 복잡하고 미묘한 역학 관계를 다 파악할 순 없으나, 모로코 세계의회에서 주제 발표를 했던 CCE 부책임자, 마크 몰리(Mark Mollis)의 강의 속에서 CCE의 차별화된 전략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마크 몰리의 강의 주제는 ‘정부기관 및 시민사회와 파트너십 형성하기’였다. 마크 몰리의 강연은 마치 CCE의 전략을 설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각국 시민교육 단체들에게 보내는 전언과도 같았다. 실제로 세계의회에서 토론했던 많은 내용이 몰리의 강의 내용들과 일치되어 진행되었다.

‘12회 시민교육 세계의회’는 ‘의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각국의 시민교육 대표 기관들이 모여 의제를 놓고 발표를 하고 열린 토론을 벌이고 실질적인 접촉과 교류를 하는 대규모 행사였다. CCE의 국제사업 총책임자인 리처드 누치오(Richard Nuccio)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행

사는 국제학술대회나 국제회의 같은 이름으로 불렸으나 참여 국가 수가 급격히 늘고 영향력도 커지면서 '세계의 회'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세계의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 단체들은 그 나라의 정치 상황이나 시민교육 발전 상태에 따라 NGO와 국가 기관 등이 혼재된 상태였으나, 분명한 것은 시민교육을 대표할 만한 조직들이 각국의 시민교육 상태를 가감 없이 솔직하게 토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많은 국제행사가 겹치려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가까운 거리에서부터 지구 반 바퀴를 돌아 모인 230여 명의 참석자가 이런 대규모 행사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토론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각 나라의 파트너를 고를 때 매우 까다롭다는 CCE의 책임자 찰스 퀴글리와 국제사업 책임자인 리처드 누치오의 자세와 신념이 다분히 반영된 행사라는 생각이 들고도 남는 대목이었다. 그럼에도 참여자들은 모로코 행사에 불만이 많았다. 모로코 정부가 자신들을 포장하는데 급급하여 지나치게 형식적인 행사들을 강조했다는 것이었고, CCE 관계자들은 이를 중재하기 위해 몹시 분주해 보였다.

### 프로젝트 시티

CCE의 국제사업 담당부서는 CCE와는 별개의 조직처럼 '시비타스(CIVITAS)'라는 호칭으로 부른다. 시비타스는 각 지역별로 나뉘어 아랍,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시비타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CCE 내 지역 담당자들과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비타스 책임자들과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시비타스는 70개국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공통분모로 <프로젝트 시티즌(Project Citizen)>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식 민주주의를 수출한다는 비난과는 달리 각국의 시민교육 담

당자들은(반미적 성향을 뚜렷이 드러내는 아랍과 중국 대표들까지도) 이 프로그램이 민주주의를 훈련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전해 주었다.

<프로젝트 시티즌>이라는 프로그램은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로 1명에서 4명까지 참여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시킨다. 참여자들은 1단계로 공공정책이나 공동체의 문제점(the problem)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2단계에선 제기된 문제를 꼼꼼히 연구하여 대안(the alternatives)을 제시하고, 3단계에선 제시된 대안을 발전시켜 정책(the policy)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4단계에선 정책을 당국이 채택하도록 정치적인 행동 계획(the plan of action)을 짠다. 참가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자료집을 만들어 시민의 입장에 선 자문위원들 앞에서 발표한다.

모로코 시민교육의 날에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을 발표했던 카사블랑카 중학교 학생들의 입을 통해서도, 멀리 팔레스타인의 학생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와 정치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갖게 하고 나아가 정책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았다.

### 세계의회가 준 선물

이번 행사에 참여하면서 얻은 뜻밖의 수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CCE가 구축해 놓은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척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다. 한 예로 유럽의회(The Council of Europe)를 대표한 교육부서 책임자와의 만남은 앞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훌륭한 통로가 되어 주었다.

유럽의회에서 발표했거나 혹은 앞으로 발표할 자료들에 관해 요청을 하면 힘껏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것이다. 물론 저작권료를 따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들었다. 또한 슬로바키아 시민교육 대표는 자국에 들



모로코 시민교육센터에 방문한 교사들과 함께. 맨 왼쪽이 필자

어와 있는 기아자동차의 한국 사람들을 현지인들과 교류하게 해주고 싶다는 말을 했고, 앞으로 이 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전시켜보자고 했다. CCE 관계자들은 각국의 교류를 적극 환영했다. 가급적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발전시켜보라는 격려도 아끼지 않았으며, 소개 받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미리 정보를 전해 주어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행사 마지막 강의에서는 강의 책임자가 준비한 내용을 숙지하여 각자 발표하는 순서가 있었다. 주제는 각 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크게 진보했거나 후퇴했던 사건을 5가지씩 쓰고, 파트너를 정하여 자신의 정보를 전해주고, 각자 들은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도미니카 공화국 대표가 맨 처음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듣고 발표했는데, 그녀의 유창한 영어 실력과 한국 민주화 운동의 고단했던 역사적 사실이 합쳐져 참석자들이 눈물을 찔끔거릴 정도로 감동적인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원래 이 강의는 교환교사 프로그램에서 처음의 서막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사례를 연습하고 발표하려던 것이었는데, 분위기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기념사업회의 설립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었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인류의 '민주주의를 향한 위대한 질주(강의 제목)' 라

는 공통 인식을 갖게 했다.

### 세계의회 한국 개최 가능성

매년 참석자 수가 늘어나는 세계의회는 2010년에는 300 명이 넘어설 듯 보인다. 이 행사는 대단한 국내외 홍보 효과와 민주주의 확대 가능성 덕분에 참여 국가 대부분이 주최를 원하고 있다. 세계의회는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열리고 있지만 아직 아시아에서는 열린 적이 없다.

중국은 세계의회 개최를 대비하여 <프로젝트 시티즌>을 시범 가동하고 있었고, 이에 부응하여 시비타스에서는 아시아 담당자 중 하나를 중국인으로 대체하여 중국어로 원활한 교류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세계의회 참여 국가들과 미국 대표들은 중국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있었고, 중국이 내용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 않는 한 참석을 거부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의 세계의회 개최에 대해서는 지지 분위기가 역력했다. NGO에서 온 참여자들은 한국을 민주주의의 국가로, 국가 기관에서 온 대표자들은 경제 발전을 이뤄낸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쪽을 설득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었다.

세계의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CCE, 그 대표가 한국에서의 국제행사(7월 11일 ~ 18일)에 참석하고자 한국을 곧 방문한다. 기념사업회는 한국에서 참된 시민교육의 주체자로서 그 위상을 확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달에 열리는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시민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불어 세계의회 주최국으로 한 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유혜선**

글 유혜선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사업팀 전문위원